문화콘텐츠에 재현된 한국무속의 양상과 무속적 상상력의 변주
- 웹툰 <바리공주>를 중심으로 -

김희은 (중앙대학교)

Ⅰ. 서론

한국의 무속은 고조선 이후부터 토착종교로 자리 잡았으나 문화가 진화하고 외래의 종교들에 밀리며 사회의 배척을 받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새마을 운동을 거쳐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미신이란 굴레 속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과거 문화콘텐츠에서 드러난 무당과 무속의 요소이다. 이제껏 다루어진 무속은 지배층에 기생하여 적대관계에 위해를 가하거나 지나친 무속의례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져 왔으며 이러한 편견은 자칫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속은 하나의 민속 분야로 인정받으며 무속 그 자체의 콘텐츠로 등장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Daum 웹툰에서 2017년부터 연재 중인 <바리공주>는 무조신巫祖神 바리공주가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조선시대에 환생하여 진정한 무당이 되고자 여정을 떠나는 옴니버스식 웹툰이다. 이 작품에서는 무속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담고 있으며 무속의례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무속의 본질을 파악하여 무속 세계의 가치를 웹툰화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웹툰 <바리공주>를 통해 현재 문화콘텐츠에서 무속이라는 소재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웹툰 <바리공주>의 내용을 살펴보고, 본 작품에서 무속에 관련된 장면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런 뒤에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무속이 지니는 무당의 본래 의미와 현대 문화콘텐츠에서 무속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웹툰 <바리공주>의 서사 전개와 무속

웹툰(webtoon)은 인터넷 공간을 의미하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cartoon)을 합한 합성어로, 디지털 환경에서 제작되고 웹 환경으로 소통되는 만화를 의미한다.[1] 2000년대 후반부터 Naver와 Daum 같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웹툰은 2010년대 이후부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의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며 일상생활과 가까운 콘텐츠로 발전하게 되었다. Daum 웹툰에서 연재되는 <바리공주>는 무조신 바리공주가 기억을 잃고 인간 바리로 환생하여 전생의 남편이자 현생의 신神스승인 무장승과 함께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품어주며 진정한 무당으로 성장하여 귀신, 설화, 민담, 민간신앙 등을 무속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현재(2021.07.16.)까지 총 153화, 38개 에피소드가 진행되었다. 무장승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곱 아들을 저승 시왕으로 올려보낸 뒤 허무함을 느낀 바리공주는 삼신의 도움으로 조선시대에 다시 태어난 후 15살이 되면서 무당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 바리가 걱정된 무장승은 신스승을 자처하여 조선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간 바리의 시선과 무당 혹은 무조신 바리의 시선으로 사람과 귀신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이

1) 류철균・이지영, 「자기 재현적 웹툰의 주제 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117~147쪽, 2013.

작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여러 에피소드에서 드러난 귀신 보기, 예지력, 영혼들을 승천시키는 등의 무당만이 가진 영적 능력과 신점, 초기도, 굿, 비방 등의 무속적인 제의적 요소이다.

Ⅲ. 무속의 콘텐츠 활용양상

3.1. 무당의 영적 능력

작품 속 바리의 영적 능력은 귀신을 보면서 시작된다. 결혼한 젊은 여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 후 남편의 후처를 괴롭힌다고 알려진 <미명귀> 에피소드에서 억울하게 자결해야 했던 전처들을 자신의 몸에 빙의시켜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관아官衙에 고발하며 생존해있던 후처를 살린다. 이와 비슷한 <무덤귀> 편은 바리의 옛 정혼자 우시열이 자신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며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된다. 바리는 시열의 집에서 무덤귀를 발견하고 곧 그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요절한 시열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얼마 후면 시열의 관례이기에 무덤귀는 아들의 관례까지 옆에 있어 주고 싶어 바리의 도움으로 그녀의 몸에 무덤귀를 빙의시켜 아들과 조우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부자父子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시열의 귀문을 잠시 열어준다. 이 두 경우를 통해 바리가 자신의 몸에 영혼을 빙의시켜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며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의 말을 들어주고 한을 풀어 승천시키는 것은 무당의 영적 능력 중 하나이며, 이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 시대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해결해주는 이와 같은 능력들은 과거 무당이 정신적 치유자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3.2. 무속의 제의적 요소

웹툰 속에 드러난 무속의 제의적 요소로는 <신의 벌전> 편에서 나온 신점과 초기도와 구애비, <비방> 편에 나온 비방, <비손>과 <허주> 편에 나온 비손과 굿을 들 수 있다. <신의 벌전> 편은 무당 유화의 '구애비'부터 시작된다. 실제로 강신무들은 후손에게 무당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무구를 땅에 묻는 관습을 가졌는데 그것을 귀업(鬼業)'구애비'로써 현실화시켰다. 무당이 나이를 먹어 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나 죽은 후에 가족 구성원과 주위 사람이 비밀리에 깊은 산 속이나 땅속에 파묻은 것을 예비무당이 예지력으로 무구를 찾는 것을 '구애비 떳다'라고 한다.[2] 웹툰에서는 유화가 무구를 발견하며 정식 무당이 된다. 무당으로 독립한 후 신당에서 내담자를 받으며 신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들을 통해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인지, 혹은 무속적인 제의로 해결해야 할 일인지를 판단한다. 내담자의 길흉화복만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무당의 역할을 묘사한 것이다. 유화는 고향으로 돌아가 위독한 할머니와 임신을 기다리는 이복언니를 위해 어느 때보다 간절히 초기도를 올리는데 이는 무당들이 매일 올리는 자시子時 기도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는 현실과 다른 오류가 있는데 그 시대에 값비싼 초를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굳이 대량으로 킬 필요는 없으나 연출을 위한 의도로 표현되었다. 원이 엄마 편지에서 모티브를 얻어 재해석한 <비방> 에피소드에는 무당이 개인적으로 가진 무속 비법인 비방祕方이 등장한다. 정략혼을 앞둔 양반가 아기씨는 운명적인 사랑을 위해 비방을 함부로 행하다가 기가 약해지며 귀신들

2) 양종승, 「황해도 무속의 지역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회』, Vol 12, 2000.

에게 시달리게 되는데 우연히 그곳에 머물던 바리가 잡귀들을 쫓아낸다. 바리는 무속의 힘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동네의 무당이 먼저 찾아올 것이니 무속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떠난다. 그 약속을 지키며 아이를 낳고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남편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미투리를 만드는 비방을 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난다. 실제로 비방은 무당마다 방식이 달라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작품 속에서 표현된 비방들은 작가가 스스로 창조해낸 것으로 실제 효과는 없다. 마지막으로 <비손>과 <허주>에서는 두 손을 비비며 신에게 축원하는 비손과 무속의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의례인 굿이 표현된다. 타지에서 시집와 변방에 군관으로 떠난 남편을 기다리던 아씨 마님은 외로움과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어깨너머로 본 비손을 흉내 낸다. 초의 불빛을 보고, 향의 길을 따라 모여든 잡귀들 중에서 원한을 가진 귀신에게 씐 아씨 마님을 알게 된 바리는 굿판을 열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허주> 편에서는 사촌 언니에게 신이 들렸다는 연락을 받은 바리가 그녀의 몸에 들어온 것이 신이 아닌 허주임을 알게 된다. 진짜 신이 들어왔다고 믿던 사촌 언니는 자신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운명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몸을 차지한 잡귀를 쫓아내 줄 것을 부탁한다. 이 두 에피소드에서는 각 주인공에게 들어온 잡귀를 빼내는 굿을 행하게 되는데 종일 진행되는 굿의 모든 것을 웹툰에서 표현할 순 없지만, 부분적인 장면을 통해 신과 인간이 소통하는 현장을 보여준다. 굿은 인간은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 신들을 청하고 신은 초대에 응해 굿청이라는 공간에 내려온다. 무속의 굿은 그것이 가정 단위의 혹은, 마을 단위의 굿이나 다른 성격의 굿이라 해도 공동체적 행사였다. 집안 곳곳에 깃들어 있는 가신(家神)에 대한 의례도, 자기 집 조상에 대한 의례도 결코 한 집안에 한정되는 의례가 아니라 의례가 끝난 후 의례 음식을 이웃들과 나눠 같이 즐기는 것이 관례였다. 무속의 여러 신과 조상들을 모시고 집안이 평안하길 비는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는 잔치기도 한 것이다.[3)]

Ⅳ. 결론 : 무당의 의미와 무속의 현대적 가치

한국의 샤먼인 무당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의례를 주관하는 자이다. 제정일치 시대의 사제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무당이었으며, 무속을 탄압했던 조선 시대까지도 국무와 활인서 무당들이 제도적 공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4)] 또한, 의학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 사회에서 무속의례들은 질병을 치료해주는 역할과 과학기술의 비문명화로 설명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현상들로 인해 불안했던 민중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진정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무속인들은 사회의 변동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화, 집단화되며 도시를 기반으로 끊임없는 수요창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당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무당들이 난립하면서 제의절차나 무가도 변질되고 있으며, 무당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5)] 이러한 현상과 함께 엄숙해야 하는 사제와 제의를 가진 다른 타 종교와는 다르게 화려하고 신명 나는 무속의 제의는 비공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초기도·치성·굿 등의 무속적 제의는 다소 부담스러운 금전이 요구되며 무속 행위에 따른 변화를 단기간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문화콘텐츠에서는 무속

3)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387~438쪽, 2009.
4) 조정현, 「문화변동에 따른 한중일 무당의 현실적응 비교」, 『비교민속학회』, 45:381-409, 2011.
5) 홍태한, 「무가 연행의 핵심 주체, 돈」, 『구비문학연구』 29(한국구비문학회, 171~192쪽), 2009.

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대와 함께 대중의 인식 변화로 무속이라는 콘텐츠는 음지에서 양지로 모습을 드러내며 무속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무속은 일반인에게 관심과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대중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무속선호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현대 젊은이들과의 상관성이 주목되는데 이는 미래가 불투명한 사회에서 스스로 풀지 못하는 현실적인 일들을 무속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는 것이라 해석된다.[6] 민중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원시 종교였던 무속이 본래 무당의 의미를 되찾으며 정신적 방황 하는 현대 젊은이들을 위로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에는 문화콘텐츠 속 무속의 소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어 크게 사회적 거부감으로 발전되지 않았고 무속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무속이란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계속되는 한 무속 콘텐츠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Vol. 8, 2009.류철균・이지영, 「자기 재현적 웹툰의 주제 의식 연구」, 『대중서사연구』, Vol. 12, 2013.

양종승, 「황해도 무속의 지역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회』, Vol. 12, 2000.

이정재, 「드라마 "왕꽃선녀님"과 현대 무속문화의 이해 -무속드라마 선호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Vol. 10, 2005.

조정현, 「문화변동에 따른 한중일 무당의 현실적응 비교」, 『비교민속학회』, Vol. 12, 2011.

홍태한, 「무가 연행의 핵심 주체, 돈」, 『구비문학연구』 29(한국구비문학회), 2009.

6) 이정재, 「드라마 "왕꽃선녀님"과 현대 무속문화의 이해 -무속드라마 선호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속과 문화』, Vol.10, 2005.